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 3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통일은 누가 시켜주나
길상사 시간여행	08	길상사 요사체에 대해 ②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14	법정 그리고 무소유
	18	법정 스님을 추모하며
스님 평안하소서!	22	나눔의 삶
	26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30	청빈의 덕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33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6	오방색 기도만두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0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3월 1일 발행 / 통권 289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통일은 누가 시켜주나

글·법 정(法 頂)

최근 들어 우리는 분단 40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을 넘나들면서 한때나마 분단의 한을 달래려고 했다. 8월 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회담과 9월 하순에 있는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맞아, 겨레의 한 사람으로서 가벼운 흥분과 기대와 그리고 조금은 불안한 생각으로 그 진행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내딛은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파원과 수행 기자들의 취재 보도를 대하면서 느낀 착잡한 감회는 필자 개인만의 것이 아닐 줄 믿는다. 한 겨레 한 뿔뿔을 이은 우리로서는 갈라진 겨레와 국토의 재결합, 그리

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그 어떤 염원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간절한 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설사 이산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북 회담이 열릴 때마다 조마조마 가슴을 졸이면서 그 진행과 결과에 민족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자들의 보도나 방문기를 여기저기에서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야릇한 호기심과 감회에 젖었다. 40년의 두꺼운 장벽을 넘어 서로에게 막힌 땅을 밟고 또 볼 수 있다는 데에 우선 그 감동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취재 보도의 경향이나 내용에서 하나같이 부정적인 시선에 마주칠 때 적잖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물

론 북쪽의 실상을 보고 느낀 대로 전하지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언론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쉬워하는 것은 대화 정신의 결여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사이끼리는 필요치 않다. 온갖 오해와 구구한 억측과 비방과 불신으로 단절된 사이이기 때문에 대화는 더욱 긴요한 것이다.

대화에는 기본적인 예절이 따라야 하는 법인데, 모처럼 어려운 대화를 갖는 마당인데도 차디찬 관찰과 비판만 있었지 한 겨레로서 따뜻한 공감과 예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이 점은 남쪽이나 북쪽이 마찬가지였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진 겨레의 재결합을 이루려는 큰 뜻이 지상 과제라면, 얼마쯤의 불만과 실수와 이질감은 서로 눈감아 접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

남북 회담을 가질 때 우리는 당초부

터 북쪽이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폐쇄된 사회주의 국가인 줄을 몰랐던가. 북녘땅이 김일성 일인 독재의 전체주의 사회임을 알지 못했던 말인가. 다른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는 일찍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희한한 집단이란 사실을 몰랐더라 말인가.

정부 보도를 통해서건 타국인의 눈을 빌려서건 우리는 북쪽의 실상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나마 대강은 알고 있는 터다. 그러면서도 굳이 그들과 대화를 갖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이를 같은 겨레요 땅이기 때문이다.

모란봉 경기장에서 10만 군중과 5만 명의 소년들이 합성과 박수 속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펼치는 카드섹션과 그 '전쟁놀이를' 현장에 서 보지 않고 전해 듣기만 해도 우리는 소름이 끼친다. 개인을 무시한 전체주의 사회 아니고는 그런 비인간적인 놀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못내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 쪽 회담 대표들이 좀 더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도중에 자리를 뜨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그들에게 트집잡힐 기회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쪽 4천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쪽 2천만 앞에 보다 의젓하고 어른스러워야 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열린사회에 사는 우리의 도량을 보여주었음 직도 해서다.

기자들의 취재 보도에 의하면, 평양 시민들이 입고 있는 옷가지들이 남쪽에서 치면 2, 30년 전이나 입었던 허름하고 유행에 뒤진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 시내에는 일없이 나돌아다니는 사람 그림자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유령의 도시'나 '무대처럼 꾸며진 전시장'이라고 외국 기자들의 말을 이어받고 있다.

옷이 날개라는 고정관념에 박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북쪽의 의상이 얼마쯤 촌스러웠을지 모르지만 흥분 일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능력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무거운 빗꾸러기들 주제에 허영과 사치에 들떠 분수 밖의 치장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분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흥이 아니라 미덕일 수 있다.

인적과 차량 통행이 한산한 평양 거리를 사진에서 보면서, 우리는 항상 흔탁한 공기와 어수선하고 넘치고 복잡거리는 서울 거리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령의 도시니 어쩌니,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울이 인간의 도시 중에서 표본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쪽은 그쪽 특성에 맞는 도시를 이루고 있고, 이쪽은 이쪽 형편에 따른 도시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또 그쪽에서 쓰는 '얼음보숭이', '남새', '려관'하는 용어를 두고 촌스럽게 보려고 하지만, 오늘 남쪽에서 쓰는 말들은 얼마나 외국어에 오염되어 있는지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언어에 있어서만은 북쪽이 훨

씬 자주적이다. 언어야말로 그 겨레의 넋이 깃드는 그릇이 아니겠는가.

우리 뜻이 아닌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고, 이제는 생각마저 틈이 벌어진 40년의 단절. 반세기에 가까운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서 빚어진 이질적인 문화를 서로 홍보고 혈뜬을 게 아니라, 단절된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우리는 민족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때까지 앞으로 오고 가면서 수많은 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40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를 이루겠다는 큰 뜻과 양식을 지닌 대화 정신으로, 서로가 아량과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회담에 방해가 되면 됐지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비본질적인 사소한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천착하지 말았으면 한다.

회담은 몇 사람의 선발된 양측 대표

만이 아니라 7천만 겨레의 전체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고 끝없는 인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0년의 단절이 단시일 안에 메워질 수는 없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명분 없는 전쟁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두고 민족의 무한한 잠재력을 얼마나 부질없는 데에 탕진해 왔는가.

우리 겨레의 비극적인 분단을 누가 해소시켜줄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이? 천만의 말씀. 그들은 다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제물로 쓰고 있지 않은가. 좋으나 곳으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 힘으로여만 갈라진 남과 북이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다. 이제 겨레의 역량이 창조적으로 발휘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1985

-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길상사 요사채에 대해 ②

글 • 홍정근

법정 스님은 길상사를 창건하신 후 단 하루도 요사채에서 주무신 적이 없다. 주지 스님이 설 방을 하나 마련하겠다고 몇 차례나 말씀드렸으나 매번 거절했다.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었다.

개인의 방을 두지 않는 이유로 '삶의 질서이며 생활 규범'이라고 하셨다. 대중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라면 더욱더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중노릇이라고 단호하

게 말씀하셨다.

창건주 법정 스님의 철저한 규범이 있었기에, 길상사에는 객스님이나 기도하러 온 신도가 머무는 객방(客房)을 따로 두지 않았다.

진영각(眞影閣)

길상사 요사채 중에 가장 막다른 곳에는 '진영각(眞影閣)'이라는 현관이 걸린 2칸 기와 한옥이 있고, 문안으로 들어서면 '법정 스님 유골 모신 곳'이라는 작은 화단이 있는데, 이곳이 2010년 3월 11일(음.1월 26일)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곳이다. 스님은 입적한 뒤에야 이곳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룻밤 머물렀던 것이다. 스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영각의 옛 이름은 행지실(行持室)이었다. 법정 스님이 강원도 수류산방에서 내려오셨을 때,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 운영에 관한 회의나 주요 인사, 여러 인연 분들과 잠시 차담을 나누며 쉬었다 가신 곳으로 당시 주지 스님의 처소였다.

행지실(行持室)은 '수행자가 모범으로 행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일본 도겐 선사 책 〈정법안장〉에 나오는 말이다. 법정 스님이 늘 곁에 두고 스승으로 삼는 책으로 '초발심 자경문' '선가귀감' '숫타니파타' '장로계' '정법안장' 등이 있다고 설하신 바 있다.

2012년 11월부터 행지실을 조출한 전시관 형식으로 꾸미고, 강원도 수류산방에서 쓰시던 유품 일부와 회원들이 기증한 서책을 모아 2013년 3월 7일(법정 스님 입적 3주기)에 진영 봉안식을 봉행하고, 스님을 기리고자 찾아오는 많은 대중을 위해 개

방하게 되었다. 진영각 내부에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증과 25조 가사, 휘장, 불자가 보관되어 있고, 강원도 오두막 수류산방에서 쓰시던 발우와 찻잔, 친필 원고, 문방사우, 필기구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과 생전 집필하셨던 무소유를 비롯하여 50여 권의 저서가 간소하게 전시되어 있다.

법정 스님 진영은 조선 시대 전통 초상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국내 인물 초상화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김호석 화백이 맡았으며, 법정 스님 진영과 현판 서체는 양평 보타암 기현(奇玄) 스님의 서체이다.

길상선원(吉祥禪院)

시민선원으로 만25세~80세 이하의 재가자로서 템플스테이나 불교대학 이수자로서 참선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재가자를 대상으로 방부를 드릴 수 있다. 선원에서의 수행은 좌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좌선방(坐禪房)이라고도 한다. 큰 의심을 품고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을 하는 곳이다.

침묵의 집

다른 절들과 달리 명상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다는 것은 길상사만의 매력일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방으로 누구나 조용히 들어가 참선, 명상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현관은 날렵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법정 스님의 서체이다.

선열당(禪悅堂)

선열당은 지장전 1층에 있는 대중 공양 장소이다. 길상사 개원 당시 대중 공양을 위한 장소가 갖춰지지 않아 극락전의 뒤 후원을 이용하였는데, 선열당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쾌적한 공양 장소는 물론 극락전의 여법한 법회 진행에도 도움이 되었다. 지장전이 건립되기 전에는 창건 준비 모임과 어린이 법당으로 사용하던 작

은 벽돌 건물이었었는데, 2002년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으로 지장전 신축 불사에 뜻을 두고, 2004년 4월 첫 삽을 뜨기 시작하여 2004년 10월 17일 상량식, 2005년 5월 8일 낙성식을 했다.

지상 3층 규모의 지장전은 고택의 멋을 간직한 길상사의 특징을 고려해 1층과 2층은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이뤄졌고, 3층은 전통 목조 건물로 지어졌다. 전체 면적은 508평이고, 선열당은 150명이 한 번에 공양을 할 수 있다. 2층은 사내에서 소장 중인 불서들을 한곳에 모아 도서관으로 활용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현대불교 대중화에 뜻을 두고, 도서관을 찾집과 병합하여 신도들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간인 '다라니 다원'으로 변모하였다.

맑고 향기로운 가게

'나누는 기쁨'이라는 조그마한 다원이 있었는데, 다라니다원을 개원하

면서 2016년 11월 29일 불교 문화상품을 비롯하여 공양물, 도서, 생활용품, 리폼·친환경 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명절에는 지역특산물도 취급하여 신도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심당(洗心堂)

세심(洗心)이란 마음을 씻는다는 뜻으로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요, 만사의 근원은 마음이므로 마음 닦는 지혜와 방법을 익혀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은 공부와 취업 그리고 각종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 이러한 시대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면서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세심당은 길상사 중고등부, 청년회 법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일화실(世界一花室)

세계일화(世界一花)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계가 하나의 꽃'이라는 의미이다. '하나의 꽃'이란 서로 다른 꽃이지만 하나의 꽃처럼 어우러져 살아가는 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세계일화실은 극락전 뒤편에 있는 옛 후원과 바느질 방 위에 2009년 9월 새롭게 지은 소형 건물로, 현재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 소모임 공간으로서, '화장품 만들기 강좌, 의류 리폼 활동, 소식지 발송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길상사 종무소

일주문 입구 왼쪽에 있으며 길상사의 종무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길상사 창건 초기에는 현재 설법전 옆에 있는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았으나, 사찰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사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2006년 8월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맑고 향기롭게’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 운동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9가지 실천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향하고자 1994년 3월 26일 발족한 순수시민모임이다.

서울(본부)은 1996년 12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고, 지역 모임은 임의단체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2016년 2월 서울을 본부로, 대구, 광주, 경남모임을 지부로 정식 등기하였으며, 부산모임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정 스님께서 사무국 활동가에게 말씀하신 ‘떠들썩하게 소문내지마라, 기업체 후원을 찾아다니며 받지 마라. 가능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마라.’는 가르침과 ‘설사 우리 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천하는 정신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것이 맑고 향기로운 운동이 아니겠

는가!’라는 말씀을 활동가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성과주의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회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이루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량(靜廊)

예부터 대소변을 보는 곳을 정량(淨廊), 변소(便所), 측간(廁間), 서각(西閣), 정방(淨房), 뒷간으로 불렀다.

최근 여러 사찰에서 사용하는 해우소(解憂所)라는 말은 원래 해의소(解衣所) 즉 옷을 풀어 헤치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속곳·속바지·속치마까지 겹겹이 입은 옛 사람들은 옷을 몇 개 뜯 벗어야 시원하게 뒷일을 볼 수 있었던지라 뒷간 이름도 옷 벗는 장소로 표현했다. 해우소란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이란 뜻으로 풀이하는데, 1982년에 입적한 경봉(鏡峰 1892-1982) 스님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용어이다.

길상사 화장실은 예전에는 설법전 바로 옆 길상7층보탑 자리에 있었는데, 현재 위치로 옮겨 2008년 12월 31일 낙성식을 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신도들이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르는 것이 듣기가 매우 불편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2009년 2월 9일 동안거 제법문에서 “요즈음 갑자기 뒷간을 해우소라는 말을 쓰는데, 일찍이 없었던 소리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절에서는 ‘정량(淨廊)’이라고 했지, 해우소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시다. 깨끗할 정 자, 결채 량 자, 본체가 아닌 결채에 깨끗한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량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회복해야 합니다.”라며 길상사 화장실을 ‘정량’이라고 부를 것을 법석에서 강조하셨다.

불교의 화장실 예법은 부처님 재세 시부터 엄격했다. 화장실에 갔다 온 뒤 손 씻는 것을 특히 중요시했다. 씻

지 않는 사람은 삼보에 절하지 말고 남의 예배도 받지 말라고 했다.

중국의 자각종색 선사가 지은 <선원청규> ‘대소편리’(大小便利) 편에는 화장실 예법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것, 침묵할 것,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래서 절에서 묵언을 해야하는 곳은 법당과 공양간 그리고 정량이다.

한국의 스님들은 지금도 초심자 시절 공부하는(사미율의)를 통해 예부터 전해오는 화장실 예법을 배우고, 총림 등 큰 절에서는 화장실에서 갈아 신을 신발이며 재 등을 마련해놓는다. 또 화장실마다 입축오주(入廁五呪)를 붙여놓고 외우도록 한다.

사찰 화장실이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한 것은 스님들과 그 절의 신도들이 화장실 예법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상사 정량에서 용무를 보는 분들은 누구라도 사찰 화장실 예법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법정 그리고 무소유

글 • 최중태

‘어디서 무엇이 되어 우리 다시 만나리.’

스님,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그날 병상에서 강원도 눈 보러 가고 싶다 하셨지요. 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버리셨습니까? 길상사 떠나실 때 미련이 없으시던가요? 송광사 다비(불교 용어: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시체를 화장(火葬)하는 일을 이르는 말. 육신을 원래 이루어진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있다.)를 보는데 실체가 아닌 환상으로 보였습니까. 정말로 가신 건지 영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어찌 내 마음대로이겠습니까. 마는 스님,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입니다.

여기 사람들 가슴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법정,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의 인연(因緣)이란 게 이뿐이던가요. 스님의 향기는 오래오래 남을 것 이지만 인정이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계실 일이지 당신만 털고 가시면 될 일입니까. 중생은 홀로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스님은 잘 아십니다. 멀리 계셨어도 나는 늘 스님이 옆집에 계시는 것처럼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70년대 언젠가 우리나라에 민주화 열기가 높을 때 스님께서 명동에 가셨다면서요. 어떤 신부님이 ‘떡물 들인 옷 입은 이가 웬일이시요?’ 했을

때 ‘그럼 이 옷을 벗고 오면 되겠습니까?’ 하셨다 들었습니다. 그 뒤로 스님은 김수환 추기경님과 특별히 잘 지내셨습니다. 스님은 김 추기경님과 함께 어두운 우리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셨습니다.

어쩌면 내 좋아하는 두 분이 꼭 한해를 시차 두고 가시는군요. 내 일찍이 이렇게 힘든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스님처럼 깔끔하게 사신 이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법회 때마다 옆에 좀 있고 싶었지만 스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내가 자리를 비켜드린 것을 스님은 아십니다.

길상사 나물밥 자주 먹고 싶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스님을 이렇게 서둘러 거두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가시는 마당에 육신에 아픔을 보태신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아, 스님 가신 자리는 비어 있고 ‘내 마음 어서 추슬러야지.’ 하지만 섭섭한 정 가늘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동갑내기 중에 볼 만한 사람 많다 하셨지요. 다 나한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인 것을 잘 압니다. 길상사에 관음상 만들자고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머리에 쓴 관이 무슨 뜻이나 물었더니 화관(花冠)이라 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병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정병(淨瓶)이라 하셨습니다. 손바닥이 이쪽에서 보이도록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구고(救苦)라 하셨어요. 나도 짧게 물었지만 스님은 토씨 하나 안 붙이고 외마디 답으로 알려주셨지요. 꽃 관에다 정화수에다 세상 고통을 구한다는 그 세 마디 주신 말씀을 듣는 순간 작품은 다 잡혔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나는 휴일을 시작했고 세 시간을 했는데 다 됐다 싶습니다. 전화했더니 뜻밖에도 스님이 받으셨지요. 얼떨결에 다 됐다 고 했는

데 그럼 지금 가 보겠다 그러셨습니다. 스님과 내가 그렇게 뜻이 맞아 길상사 절 마당에 관음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역겹의 시간 속에서 우리 두 손이 잠깐 하나로 만나 한 형상(形象)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만남이 시작이거니 했는데 헤어져야 한다니요. 이를 어찌 박절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모님을 닮은 관음상이라 합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라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낸 애칭입니다.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고 경계를 풀면 모든 경이한 울타리 안에 있고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옛날 「반야심경」을 읽으며 불경 공부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이 꼭 읽혔습니다. 우연히 성경책을 손에 들었는데 하룻밤에 다 읽었다 할 만큼, 아 니 다 봤다 할 만큼의 일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조화냐고 스님께 물었더니 ‘그때 경(經)을 읽는 마음(눈)이 열렸다!’ 하셨습니다. 실로 40년 만에 묵은 속제가 단칼에 풀렸어요.

스님도 아시는 일이지만 지금 어떤 이가 길상사를 주제로 오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절터를 스님께 시주한 보살의 노래가 바탕이 되고 아름다운 대합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북동 골짜기 평범한 땅이 성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스님의 지혜와 공덕입니다. 스님은 글로 선교하셨습니다. 일상의 언어로 보통 사람들의 가슴에 진리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스님의 글은 우선 맑지요. 먼저 마음을 정갈하게 합니다. 그리고 뜻이 뒤따라옵니다.

정화된 물을 마시면 사람이 맑아 집니다. 그 물이 어디서 솟아나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삼청

터널을 지나는데 차 안에서 느닷없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에 ‘목이 마르다.’ 하셨는데 그것을 ‘사랑의 갈증이다’ 하셨어요.

법정 스님은 번뜩이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궁극적 삶의 목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물질문명의 퇴폐 앞에 무소유(無所有)라는 큰 경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스님의 삶 전체가 휘

파람이 되어 이 강산 골짜기마다 메아리칩니다.

이제는 쉬실 때.
스님 법정! 어디서 무엇이 되어 우리 다시 만나리.



최종태 • 1932년 대전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생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종영 선생과 장욱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자.

법정 스님을 추모하며

글 • 박청수(원불교 원로교무)

마르지 않는 산 밑의 우물 山中 친
구들에게 공양하오니

표주박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저마다
등근달 건져가소서...

다실 벽에 걸려있는 글귀를 읽어보
면서 스님의 다실에 고여 있는 한적함
과 청정함은 스님의 내면적 투명함에
연유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법정 스님을 지금부터 꼭 19
년 전에 처음 만났다. 나는 일행과 함
께 불일암에 당도하였음을 어떻게 알
릴까 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무
렵 손수 균불을 지피고 나서 부역문
을 열고 나오던 스님이 아래채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겨주셨다. 한 번도 뵈 일은 없

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이 법정 스님임
을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불일암에 올 때는 미리 송광사에
전화 연락을 하라”는 당부를 지켰기
때문에 아마 스님도 불일암 길손에
대한 전갈을 받으셨음이 틀림없었다.
우리가 목을 처소인 아래채 쪽마루에
짐을 놓고 갖고 온 호접란을 들고 위
채로 올라갔다. 스님은 꽃부터 반기셨
다. “내가 LA 있을 때 많이 보던 꽃이
구나. 멀리 오느라 애썼다” 하시며 꽃
과 대화하는 사이 나는 매화나무 곁
으로 갔다. 아래채에서 위채를 올려
다보았을 때, 정적 속의 불일암 뜨락
에 피어 있는 매화는 참으로 그윽하
고 아름다워 보였다.

‘매화 가지에 꽃망울이 조금씩 부
풀어 오르고 댓잎이 부서지는 봄 햇
살이 향기롭습니다. 꽃가지에 향기 번
질 때쯤 다녀가십시오’라는 스님의 편
지를 받고 나선 길이었다. 겹봉에 순
천 91. 3. 4’라는 소인이 찍혀 있었다.
나는 시절을 딱 맞추어 온 것이다. 내
곁으로 다가온 스님은 “애들이 겨울
부터 꽃망울을 서서히 부풀리면서 참
으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피었어요.
그렇게 오래 망설였다 피니까 이렇게
향기도 좋은가 봅니다”라고 했다. 스
님은 만개(滿開)한 나무를 가리키며 “
저것은 이제 흔히 다 빠져나가 버렸어
요” 하면서 허허로운 미소를 지었다.
깨끗한 얼굴의 삼이 서로 등을 맞대
고 걸려 있었다. 호미와 팽이, 쇠스랑,
크고 작은 톱 등 스님의 살림살이에
소용되는 연장들이 아래채 공간 안에
질서 정연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불일암 사랑채 뒤뜰에는 작고 예쁜
향아리들이 나란히 묻혀 있었다. 저

독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살며시 뚜껑을 열어보
았다. 그 속에는 빨간 글씨로 ‘열어보
지 마시오’라고 쓰고 다시 그 아래에
검정 글씨로 ‘91년 여름에 떡을 찐무
지’라고 쓰여 있었다. 불일암 나그네들
의 버릇이 비슷하기에 스님이 이러한
조치를 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불일암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거
진 곳에 정결과 질서로 조화를 이루
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정결과
질서가 스님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잠시 무서운 긴장감까지 느껴졌다. 그
모두는 스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엄
격함이었다.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로 불리는
스님의 다실에서 그날 밤 차를 마셨
다. 스님은 전깃불을 끄고 운치 있는
촛대에 촛불을 켜다. 그러나 촛불의
불빛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한동

안 바라보다 “촛불도 시끄러워”라고 했다. 그리고는 말간 기름이 담긴 하얀 백자 등잔 위로 살짝 올라온 가느다란 까만 심지에 불을 맏기고 촛불을 켰다. 밝음의 강도가 한결 낮아진 방안은 그지없이 아늑해졌다.

스님은 이야기하는 동안 처음에는 차향(茶香)이 그윽한 녹차를, 두 번째는 구수한 우롱차를, 그리고 세 번째는 홍차를 내놓았다. 차의 종류에 따라 다기(茶器)도 바뀌었다. 여러 종류의 차를 음미하면서 마시니 차향과 차 맛이 더욱 향기로웠다.

**마르지 않는 산 밑의 우물
山中 친구들에게 공양하오니
표주박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저마다 등근달 전져가소서.**

다실 벽에 걸려 있는 글귀를 다시 읽어보면서 스님의 다실에 고여 있는 한적함과 청정함은 스님의 내면적 투

명함에 연유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법정 스님을 ‘무소유의 실천자’라고 일컫지만 나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관리자라는 점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내가 불일암으로 법정 스님을 방문했던 1991년은 히말라야 설산에 학교를 설립하려 애쓰던 시절이었다. 웬지 친근한 마음이 들어 얼마 뒤 설산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편지로 “거들고 싶다”고 하시더니, 내가 있던 원불교 강남교당에 오셔서 100만 원을 내놓으시며 “원고료요” 하셨다.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힘이 남아 있으면 되느냐. 큰일을 했으면 힘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위로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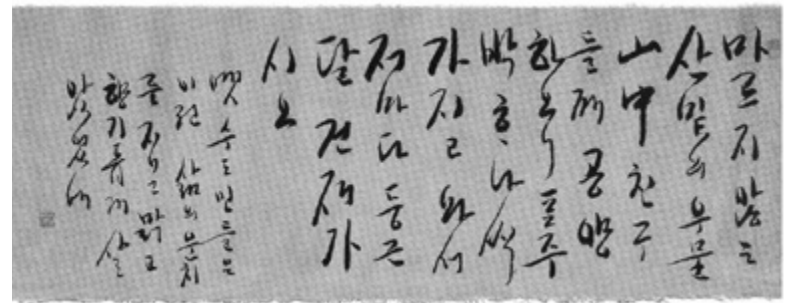
1997년 길상사가 문을 열 때 스님은 봉축위원에 나를 넣으셨다. 그래서 개원식 날 갔더니 스님 옆에 김수환 추기경님과 내 자리가 있었다. 아

마도 스님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추기경님을 초청하셨고, 남녀의 차별도 넘어선 분이라 나도 부르셨던 것 같다.

스님은 내 저서 ‘나를 사로잡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실린 추천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박청수 교무님 하면 나는 문득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을 연상한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천수관음은 두 손과 두 눈으로는 모자라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지니고 한량없고 끝없는 구제를 펼친다. 종교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따뜻한 가슴과 자비의 실천에 있다.”

스님의 귀한 격려 말씀을 세세생생 실행할 것을 명심하면서 스님의 참열반을 빈다.



이 글은 2010년 3월 12일 조선일보에 특별기고한 박청수 원불교 원로교무님의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나눔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누다든가 눈매를 나누다든가 일을 나누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누다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 산에는 꽃이 피네

사람 마음의 바탕은 선도 악도 아니다. 선과 악은 인연에 따라 일어날 뿐. 선한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선해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악해진다. 안개 속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듯이.

- 버리고 떠나기

번뇌 밖에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믿고 있지만,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일기일회

인간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 잡념 없이 기도를 올릴 때 자연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때는 삶의 고민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 산에는 꽃이 피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 아름다운 마무리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다.

- 무소유

꽃이 제대로 피게 되면 그 향기는 저절로 번지게 마련이지요. 지혜는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덕은 이웃으로 향하는 손길입니다.

- 산방한담

여기 삶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다. 이 나무 아래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왔다
다가 떠난다.

때로는 미물의 몸으로, 때로는 인간의 몸으로, 여자와 남자의 몸으로, 그렇게
몸을 바꿔 가며 이 삶이라는 나무 아래 앉았다가 간다.

이 나무 아래서 무엇을 깨닫고 가는가. 당신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
요한 것은 무엇을 자각하고, 어떤 깨달음을 이루는가이다.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개 일시적인 충동과 번덕과 기분, 그리고 타성에
젖은 습관과 돌레의 흐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헤어나려면 밖으로 눈을 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
다보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 버리고 떠나기

깨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한다.

보람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한다. 의미를 채우지 않으면 삶은 빈 껍질이다.

- 물소리 바람소리

삶 그 자체가 되면 불행과 행복의 분별이 사라진다.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불행과 행복을 피하는 길이다.

- 일기일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
활필수품이 아니면 자꾸 뒤로 미뤄 보라. 그러면 세월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
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없어도 좋은 것인지 그 기간에 판단이 선다. 그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저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잔뜩 사들여 보라. 그것은 추한 삶이다.

결국에는 물건더미에 깔려 움짱 못하게 된다. 구하지 않아도 좋았을 그런 물
건들이 우리 집 안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 산에는 꽃이 피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지니려면 주어진 시간을 값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탐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

흙에 씨앗을 뿌려 채소를 가꾸듯 자신의 삶을 조심조심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 아름다운 마무리

얼어붙은 대지에 다시 봄이 움트고 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잠잠하던 숲이
새소리에 실려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우리들 안에서도 새로운 봄이 움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루는 버릇과 일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타성에
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묵은 버릇을 떨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새
움이 뜬다.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길상사 진영각 방명록에서)

2주 전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맘을 추슬러 길상사를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죄스러움과 살아생전 못다 한 걸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엄마를 생각하니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되새기게 됩니다. 평생 희생으로만 사셨던 엄마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극락왕생하셔서 부처님 곁에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항상 길상사에 찾아와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얻고 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기여서 책 속 내용에 큰 감동을 하였고 그때 이후로 힘든 시험을 끝내고 나면 꼭 들렀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백석과 자야의 사랑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곳을 걸어 다니곤 합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시간을 잘 보내야하는 시기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심을 찾고 다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후회 없는 1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

오랜만에 잊고 있던 이곳을 찾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만 표정이 이글어지고 답답한 요즘입니다. 누구보다 단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따라가고 자꾸만 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맑고 향기롭게」, 어린 날 마음을 씻어주고 착하게 해주던 이 문구를 다시 접하고 나니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스님, 깊어가는 이 가을 안녕하소서.

*

법정 스님, 나를 어미로서 혼자 백일기도를 시작하여 어제가 백일을 맞이하는 날이었답니다. 혼자 회향하고 늘 좋은 것들만 꿈꾸고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고3 아들의 백일기도를 말미암아 시작했던건만 나를 제기도가 된 백일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도장을 찍어주고 싶네요.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도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 말씀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발원해봅니다.

*

스님,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절에 와봅니다. 혼자 스스로 절에 처음 와 보네요. 저도 모든 이들과처럼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바라고 싶지만 요즘 전 정말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뭐든 놓치고 살아가네요.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요즘 같아서는 생각 없이 하루하루 조용히 무탈하게 살고 싶어요. 이곳에 와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에 올 땐 지 금보다 밝은 정신으로 오겠습니다.

*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산책 겸 나왔습니다. 절은 가끔씩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차분해지고 친정 시골에 온 것처럼 계단 하나하나 건물 하나

하나 정겹습니다. 어떤 책에서 기도할 때 바라는 점을 쓰지 말고 마음의 다짐을 기도하라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에게 화내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스님, 아이들에게 화내는 모습을 줄이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즐겁게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도 행복하세요.

*

가진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나 자신만 힘이 들면 되거늘 거기서 오는 나쁜 마음으로 소중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조금이나마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가기 위함입니다. 저의 어지러운 마음과 욕심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두고 갑니다.

*

하루 종일을, 몇 날 며칠을, 컴퓨터만 바라보며 살다, 오늘 가을날이 좋아서 언니와 함께 길상사에 들렸습니다. 여기도 처음, 언니와도 처음. 이 나이에도 처음 한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스님이 머물던 자리에 저도 머물고 있으니가요.

*

몇 년 만에 스님께서 앉으셨던 의자가 보고 싶어 카메라 메고 다시 왔습니다. 입구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최종태 교수의 관음상은 내 마음 속에 자비의 상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지구 환경을 위해 적게 사고 적게 먹고 간소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한 가지씩이라도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

대의 어른으로 기억되는 스님, 가끔 오겠습니다.

*

연인과 헤어짐으로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당시 장면이 떠올라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어질 인연이 아니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헤어지게 하셨나 봅니다. 모든 일이 제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나 봅니다. 이번 일로 저는 비록 사랑하는 그녀를 잃었지만 제 안에 있는 내면의 화(火)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화와 모든 아픈 기억, 후회, 미련, 사랑, 질투, 시기를 이곳에서 훌훌 털어 넘기길 기도합니다. 스님, 제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생전 스님의 법문을 길상사에서 들으며 행복했던 시간이 무심합니다. 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나라를 걱정하시던, 특히 4대강 자연 훼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던 스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이후 많은 사건·사고의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국민들은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세가 넘다 보니 스님의 법문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앞으로 명상과 마음공부를 실천하고 보살행에 최선을 다하여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조금이나마 마음 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영각을 다녀간 많은 분의 글 중에서 몇 개 가려 뽑았습니다. 방명록에 담아놓은 속 깊은 이야기가 스님에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청빈의 덕

글 • 백형찬

얼마 전, 동네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라는 책을 발견했다. 법정 스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제자인 현장 스님이 엮은 책이다. 첫 장을 들추었더니 스님의 카랑 카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개신교 신자들보다 천주교 신자들이 스님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불일암(전남 순천 송광사 소재)에 많이들 찾아갔다. 스님의 천주교 신자들을 '천주 보살'이라 불렀다. 스님은 베네딕토 성인과 프란치스코 성인을 무척이나 존경했다. 그래서 어떤 불교 신자는 '스님은 승복만 입었지, 마음속에는 천주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라 했다. 스님은 실제로 서가 한쪽에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공양을 올리곤 했다. 그래

서 이해인 수녀는 스님을 '가톨릭 수사님' 같다고 했다. 책을 읽으면서 가슴에 크게 와 닿은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1998년 2월 24일에 법정 스님이 명동 성당에서 한 강론이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이 길상사 개원 법회에 참석하여 축사한 것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법정 스님은 강론에서 우선 성 베네딕토 수도원 규칙서 첫 장을 언급했다. 첫 장에는 '수도자는 먼저 가난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주어진 가난은 극복해야 하지만 스스로 억제하며 선택한 맑은 가난(淸貧)은 절제된 아름다움이며 삶의 미덕이라 했다. 청빈의 덕을 지니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

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면 꼭 지녀야 할 따뜻한 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차갑고 살벌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앙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나온다고 했다. 따라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친절한 이웃 사랑'이며, 친절은 가슴이 따뜻할 때 나오고,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지만 맑은 가난(청빈)의 덕이 자라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였다. 스님은 간디를 무척이나 존경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라는 간디의 말을 인용해 말했다. 스님은 요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무척이나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자신의 철학인 '무소유'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무소유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 내가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라고 설명했다.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되고, 필요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이다. 사람이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려면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하는데, 사람들은 욕망을 가득 채우고도 그것도 모자라 넘쳐나는데 도무지 텅 비울 줄을 모른다고 했다. 바닥까지 텅 비워야지만 새 것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린다고 했다. 비워야지만 비로소 꽉 차는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꽉 차는 충만감이 바로 하늘나라를 잠깐 느끼는 순간이라 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은 우리 자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스님은 가수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 노래를 무척이나 즐겨 불렀다. 노래 가사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

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이다. 스님은 노래 가사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그네는 어느 곳에도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하느님이 부르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언제라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백형찬 •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생명과학자를 목표로 공부했다.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서울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필가로 등단하여 '출가 4박 5일로 작품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예수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예술혼을 찾아서> <죽음을 읽다> 등이 있다.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글 • 곽영미

“목사님, 밥퍼 운동을 하시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기자가 최일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밥퍼 운동’이 알려지면서 목사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두 손을 걷어붙이며 밥퍼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밥퍼 운동을 그만두라고 협박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목사님이 그런 협박이나 비난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지레짐작하였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오늘도 우리랑 안 놀아 주고

어디 가?”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놀아.”

아이들이 최일도 목사님을 가로막으며 때를 썼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이들과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던 어머니의 얼굴도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매일 라면만 먹으며 배고팠던 시절도, 비난을 받았을 때도 아니랍니다.

“가족이 힘들어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때론 상처가 별이 되기도 한답니다. 아픔을 잘 다독

이면 흥터가 아니라 아름다운 별이 되지요. 이제는 가족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랍니다.”

올해로 20년이 넘는 ‘밥퍼나눔운동’은 노숙자 무료 급식을 위해 매일 급식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어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밥퍼 운동을 통해 먹을거리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고요.

신혼여행 대신 ‘밥퍼 봉사’를 자청하는 아름다운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혼여행 비용을 밥퍼나눔운동에 기증하고, 신혼여행 기간 동안 노숙자들에게 밥과 국, 반찬 등을 배식하고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생각해서 실천한 것뿐인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답니다.”

그들은 신혼여행이라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간에 나눔을 실천해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생일, 돌잔치를 기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의 하나인 <우동 한 그릇>을 알고 있나요?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허름한 차림의 부인과 두 아들이 들어와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동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주인은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들에게 주문한 양보다 우동을 더 많이 주었지요.

그런데 왜 가게 주인은 우동 그릇을 늘리지 않고 조용히 양만 늘렸을까요? 우동 그릇을 늘리면 그들이 미안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치 못 채게 조용히 양만 늘려 준 것

이지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속담을 알고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나눠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잔치나 제사 음식은 물론이고, 부침개나 전을 부칠 때도 항상 이웃들과 함께 먹었어요. 가난해도 나눠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음식이 풍부한 오늘날은 어떤가요? “요즘 굶는 집이 어딴어?” 하며 음식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요.

음식에는 생명을 살리는 영양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길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담긴 음식은 그 어떤 값비싼 음식보다 맛이 좋고 영양소도 풍부하지요. 먹는 사람도 행복해지고요. 최일도 목사님은 스스로 인간의 밥이 되어 인간을 살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오늘도 열심히 밥을 푸고 있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1988년부터 청량리역에서 밥 굶는 이웃들에게 라면을 끓여 주기 시작해서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눠 주는 생명운동인 ‘밥퍼 운동’을 시작했다. ‘이 땅에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라는 구호를 걸고 오늘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오방색 기도만두

글 • 권오분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돈으로 현금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쪼개어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데 가서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 줄 수도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갈 때마다 커다란 마대자루를 배낭에 넣고 갔다가 하산할 때 쓰레기를 담아 올 수도 있다. 그들은 세상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품에 담으면서 사랑을 실천한다. 외로운 이들을 내 품으로 품어주고, 산의 쓰레기를 내 호주머니 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버리고 내친 사랑을 주워담으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허우대도 멀쩡

하고 설렁설렁 성격도 좋아 보인다고 들 하는데, 정작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오게 하는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속도에 맞추다 보면 지쳐버려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행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방에서 뒹굴뒹굴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여행을 간다해도 다큐멘

터리 작가들이 최상의 순간만을 찍어서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그 걸음을 TV를 통해서 해소한다. 히스토리채널이나 지오그래픽, 동물의 왕국 같은 전문 채널은 온종일 붙잡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다. 그러나 일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기에는 나는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다. 그 중의 하나가 만두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두라면 그리 싫어하는 경우가 없는 듯하다. 만두는 누가 먹는지 정해지면 그 사람의 식성이나 건강에 맞는 만두소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밖에 없는 흔하지만 특별한 음식이 된다. 이름이야 '건강 맞춤 만두'.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김치만두일 것이다. 내가 만두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신김치가 고민되면 전화를 한다. 신김치

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두부와 곱게 가진 돼지고기만 있으면 신김치의 변신은 순식간에 이뤄진다.

만두를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두피 만드는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도자기 만드는 것을 배우러 다니면서 흙반죽하는 일은 즐겁고 만두피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밀가루 반죽을 차대고 작게 떼어서 병으로 미는 모든 과정을 도자기를 빚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약 대신 생각해 낸 것이 만두피에 색을 넣는 일인데, 믹서가 없는 집이 없는 요즘엔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부추, 당근, 붉은 양배추, 치자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채소이기에 언제나 냉장고 한편에 자투리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쉽게 만두의 색을 입힐 수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씩만 갈아 넣으면 고운 색을 띤 반죽이 만들어진다.

유치원 아이들의 미술 시간처럼 알

록달록한 밀가루 반죽을 희고 큰 접시에 나란히 놓고 조금씩 떼어서 둥글게 밀다 보면 놀이를 한다는 기분이지 일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색깔마다 만두소를 달리 넣어도 쉬이 구별해서 먹을 수가 있기에 먹는 사람들도 재미있어한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부와 살코기를 넉넉히 넣고,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진 양배추와 고기, 양파 그리고 두부를 넣는다. 기운이 빠진 이를 위해서는 부추를 많이 넣고, 호박을 즐기는 이를 위해서는 애호박을 채 쳐서 절인 것을 꼭 짜서 넣는다.

기본적으로 두부를 꼭 넣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영양식이 아닐 수 없다. 채식을 즐기는 이에게는 김치와 두부만 넣고도 맛있는 만두가 된다. 절에 갈 때는 김치만두에 부추나 파마늘을 빼고 참기름과 깨소금을 넉넉히 넣는다.

초록색(부추), 주황색(당근), 보라색

(붉은 양배추), 노란색(치자)의 만두를 조그맣고 예쁘게 빚어 놓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밤새워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다. TV에서는 예쁜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 속에는 물고기들이 노닐고, 로키산맥에 사는 독수리와 아름다운 숲을 어슬렁거리는 곰들 그리고 맑은 물을 거슬러오는 연어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손으로 만두를 빚는다.

환자를 위하여 만들 때는 종교 방송을 본다. 그것도 상대방의 종교에 맞추어서 채널을 맞춘다. 설교나 법문을 들으면서 만두 먹을 이의 건강을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귀로는 들으면서 가슴으로 빌고 손으로 그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여자인 듯하다.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니 피곤하지가 않다. '기도만두'는 모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우선 방송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보여

주는 바람에 '기도만두 아줌마'가 되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나를 TV에서 보았다고 반가워한다.

만두를 바로 삶아 건져서 식힌 다음 냉동실에 넣어 두면, 아무 때나 물만 끓이면 만두국이 되니 손님이 와도 귀찮을 일이 없다. 중국집에서 자랑면을 주문해서 상에 놓는 시간보다도 빠르다. 춥지 않을 때는 만두를 삶아서 넓은 앞사구를 깔고 차려내면,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단한 요리로 대접하는 기분이다.

사람을 불러서 힘들이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내고, 먹는 이가 즐겁고 편안하게 놀다 간다면 나로서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나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이는 우리 집에 와서 오방색 만두를 드시고 가길 바란다. 물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는 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말이다. 행복은 여럿이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

불기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접수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못 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중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등(10만원)	도량 연등(3만원)
극락전 가족등	도량 가족등
지장전 영가등	도량 영가등

※올해부터 법당 영가등은 지장전에 모셔집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19년 숲기행 맏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2019년 숲기행은 2018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암자기행을 주제로 지난해에 다녀보지 못한 암자를 둘러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본래의 나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숲기행 일정 : 매월 4째 주 토요일

일자	장소	숲 특성
3/30	충남 계룡산 동학사	동학사 입구에 있는 관음암, 길상암, 미타암, 문수암 그리고 삼불봉 아래의 상원암과 석탑들
4/27	대구 팔공산 은해사	은해사를 비롯한 아름다운 수미단의 백흥암과 청동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과 보화루가 유명한 운부암 그리고 팔공산의 자연경관
5/25	강원도 오대산 북대미륵암	월정사의 산내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 미륵암과 주변의 수많은 야생화
6/22	대구 팔공산 선본사	약사여래부처님 기도처 선본사와 갓바위 부처님 그리고 관봉 주변의 암자들
7월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		
8/24	강원도 설악산안양암	신홍사의 3암자 순례와 울산바위 가는 길의 뛰어난 자연경관
9/28	경북 운달산 김룡사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운달산과 김룡사의 산내 3암자 순례
10/26	충북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의 법주사, 세조가 병을 얻고 3일간 머물면서 병을 고친 복천암, 중사자암 그리고 속리산의 자연환경
10/11	강원도 오대산 동대관음암	월정사의 5대암자 중 중대, 동대, 남대, 3암자와 부도전 그리고 선재길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0월 11일은 봉사자 숲기행으로 (사)맏고 향기롭게 봉사자만 참여 가능

2. 접수 안내

- (사)맏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3월 4일, 4월 1일, 5월 6일, 6월 3일, 8월 5일, 9월 2일, 10월 7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3월 11일, 4월 8일, 5월 13일, 6월 10일, 8월 12일, 9월 9일, 10월 14일)

3.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4.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맏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법정 스님 저서 필사(筆寫) 및 읽기 소모임 안내

중앙모임 사무국에서는 법정 스님의 사상과 저서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온오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저서 필사, 낭독, 소감 나누기, 법문 영상 보기, 법정 스님 행장 정리 등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는대로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 **모집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동아리팀
- **팀구성** : 5~10명(최소 5명)
- **참여자 혜택** : 최대 150만원 사업비 지원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활동(예)** : 노인, 미혼모,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에너지 절약, 나무심기 등의 자연보호 사업
벽화 그리기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
- **일정** : 접수기간 : 4월 1일(월)~4월 12일(금)
합격팀 발표 : 4월 18일(목)
합격팀 OT : 4월 20일(토)
봉사활동 수행 : 5월~10월 (최소 6회, 30시간 수행)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봉사활동 1회 참여(의무)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11월 15일(금)
결과보고회 : 11월 30일(토)
※세부 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clean94@hanmail.net "나누는 기쁨(팀이름)"으로 전송
상세한 모집 진행 및 서식은 홈페이지 www.clean94.or.kr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02-741-4696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사무국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시길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2019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및 사업, 재무보고 홈페이지 공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2018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지난 1월 31일 회계, 사업감사를 실시하였고, 제34차 대의원 총회를 2월 22일 개최하여, 본부(중앙모임)를 비롯한 각 지부의 2018년 회계 감사보고, 사업 결과, 결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논의 안건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변경으로 본회 정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총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사업과 재무보고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모임 홈페이지 <참여-

후원> - <사업·재무보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9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중앙모임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맛있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 중단 중입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Maigo Hangeurumge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Maigo Hangeurumge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

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Maigo Hangeurumge>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Maigo Hangeurumge>

- Maigo Hangeurumge로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4일)/Maigo Hangeurumge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못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만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9일)/

- 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6, 23일)

<자연을 Maigo Hangeurumge>

- 숲기행 3월 30일(토) 충남 계룡산 등학사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기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 태극권, 형익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 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신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기로운 가계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환경 및 시설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
서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법정 스님 9주기 추모법회

- 일시: 3월 2일(토) 오전 11시
- 장소: 설법전

보름기도

- 일시: 3월 2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3월 2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
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선포 받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3월 2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3월 3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
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3월 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 천일기도 6회차 회향

- 일시: 3월 3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3월 9일(토) 오후 8시
~ 3월 10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길상사 봄맞이 대청소

- 일시: 3월 17일(일) 오후 1시
- 집결: 극락전 앞

❖ 신행단체 봉사자 모집 안내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
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는 불자님
들의 주저 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실 신행단체는 금강회, 보
현회, 문수회, 지장회, 천수회(템플), 청년회, 합창단, 새신도교육회입니다.

☎ 문의: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법정스님 9주기 추모법회	3월 2일	오전 11시	설법전
다라니 기도	3월 2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3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3월 9일	저녁 8시 ~ 새벽3시50분	극락전
보름기도	3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2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3월 3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2019년 길상사 불교강좌 수강생 모집

경 전 반

- ◆ 개 강 : 3월 5일(화)
- ◆ 응시자격 : 누구나 수강 가능
- ◆ 강의시간 : 매주 (화) 오후 2시~4시
- ◆ 과 목 : 법화경 ◆ 수 강 료 : 7만원 (교재비 별도)

불 교 입 문

- ◆ 개 강 : 3월 6일(수)
- ◆ 응시자격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 강의시간 : 매주 (수) 주간 - 오후 2시~4시
- ◆ 수 강 료 : 8만원 (교재비 포함)

불 교 대 학

- ◆ 개 강 : 3월 7일(목)
- ◆ 응시자격 : 기본 교육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 강의시간 : 매주 (목) 주간 - 오후 2시~4시
- ◆ 수 강 료 : 학기등록 20만원 (1년 40만원)

불기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접수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못 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등(10만원)	도량 연등(3만원)
극락전 가족등	도량 가족등
지장전 영가등	도량 영가등

※올해부터 법당 영가등은 지장전에 모셔집니다.



2019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뛰어난 성적이 아니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①추천서

- 추천서는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기재
- 학교 장학, 행정 담당자의 확인 필수

②학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마감 : 2019년 3월 15일(금)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9년 4월 3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